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사셨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내일 성탄절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할아버지가 잠을 깨었을 때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치는 성탄의 아침이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였다.

기다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의 청소부만 보이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 라고 하시고 그를 맞이해 들었다. 점심 때가 다 되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흠이불에 어린 아이를 싸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측은하여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 있는 아기의 발을 할아버지는 보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보았던 조그만한 신발을 신겨 보았다. 신기하게도 꼭 맞았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느 듯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 왔다.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 스프와 빵을 데웠다. 그 때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훔치고 달아나던 아이를 붙잡아 때리며 경찰서로 데리고 갈려고 끌고 갔다. 그 때 파파파노는 그 할머니에게 간청을 했다. “그 아이가 배고 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 과일 값을 지불하지요” 파파파노의 마음에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 쪽으로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결국 꿈이었던 말이지” 라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 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고 하는 어제 밤 꿈의 그 소리가 들렸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세 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안은 여인으로 마지막으로 거지로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거리에는 눈이 소복 소복 쌓이고 있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길보리교인"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3권 5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2월 23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포로수용소의 성탄 촛불



2차 대전 때 열대 밀림 한 복판에 있던 일본군의 포로수용소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 시설이 제대로 없어 늘 어둠이 가득했고 무더위와 굶주림 때문에 수용소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어쩌다 쥐를 발견해서 잡아 먹게 되면 그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 남들에게 내놓지 않는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 양초를 숨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은 절친한 친구 포로에게 이 양초가 위급할 때 중요한 식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이 양초를 친구에게 나눠주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포로가 ‘오늘이 성탄이야. 내년 성탄은 집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빠져 있는 포로들은 아무런 대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양초를 숨겨두었던 포로는 그 양초를 꺼내어 판자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그 안에 밝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불 빛에 포로들은 잠을 깬고 하나 둘 촛불 주위로 모여 들었습니다. 촛불은 어느새 포로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촛불은 점점 더 환하게 비추어 포로들의 마음까지도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내년 성탄절은 집에서 보내자고” 라고 누군가가 말하자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자며 서로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날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본 포로들은 어느 누구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절: 박형길, 상배 .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4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6(강림절2)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2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2:8-14(신 90)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평화의 왕"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26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2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 일 안 내
2일	최윤희	인치혁	김순자	사카시다, 윤형권	최재학, 정희자
9일	최재학	윤하나	김영길	김성국, 김시욱	박일영, 윤형권
16일	김교섭	윤형권	김정미	이재영, 이종운	정덕수, 김순자
23일	김순자	임혜자	김종건	김교섭, 최윤희	이재영, 인치혁
30일	김영길	정덕수	노은숙	박상욱, 양경배	김종건, 박상욱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 1시
------------	---------------	--------------	--------------------

교 회 소 식



Christmas

- 오늘은 대강절 넷째주일(성탄주일):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자들은 보잘 것 없었던 목자들
- 24일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 Christmas with the family
*<일시> 24일(월) 저녁 7:00. <장소> Pump House
*성탄행사: 성탄절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는 목적이 분명하면 할수록 기쁘게 보낼수록 좋습니다. 믿지않는 이웃, 성탄을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목적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마련했습니다(타교회 성도를 전도의 목적으로 초청하시면 안됩니다).
*<초청>공연장 좌석상(200석) 1가정에서 1가족만을 초대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성탄예배: 25일. 낮 12:00. 교회
- 수요일예배 탐방기간: 금주부터 1월 23일까지 수요일예배는 "이웃교회 탐방기간"으로 한 후 1월 30일에 개강합니다
*1월 한달동안 여러교회 수요일예배나 건전한 집회를 참석하여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출애굽기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기도부탁: 1월 한달동안 잘 준비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교우소식
*엄주화 성도: 모친 고회를 위해 한국방문중. 어머니가 계신곳이 고향입니다.
*전병주 전도사: ☎ 443-4002 ☒ 1A Bonito Pl. Glenfield.
- "송구영신예배" 예고
*<일시> 12월 31일(월) 밤 11:30 <장소> St. David's Church

7.12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23일	성탄주일	"Christmas in the Family" 성탄축하의 밤(24일)
25일(화)	성탄절	성탄예배
30일	송년주일 이삭줍기봉헌	송구영신예배(31일)

